

## “자원봉사는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을 바꾸는 행동”

### 조계춘 홍천군자원봉사센터장 인터뷰



◇ 조계춘 홍천군자원봉사센터장

먼저 홍천군자원봉사센터장 취임을 축하드리며, 홍천군민께 취임인사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5대 홍천군자원봉사센터장으로 취임한 조계춘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풍요로운 행복창조도시 홍천을 만드는 일에 헌신해 오신 군민여러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자원봉사자 여러분!

자원봉사의 삶을 사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존중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선한 진심과 여러분의 재능들이 모여져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고 나아가 발전하는 홍천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급번 저에게 자원봉사센터장의 소임을 맡겨주신 홍천군민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저 또한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천군자원봉사센터장님께서 생각하는 자원봉사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자원봉사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 또는 시간과 물질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사회를 지향하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운동이 바로 자원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웃과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일이 자원봉사의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고, 사랑을 나누면 희망이 자란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랑만이... 지난 시간을 후회스럽지 않게 하고, 사랑만이 다가올 시간을 기다리게 해주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홍천군자원봉사센터는 언제나 이웃을 섬기고 나눔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드높이고, 더 많은 봉사의 물결이 들불처럼 우리 사회에 번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천군자원봉사센터의 향후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홍천군자원봉사센터는 출범이후 등록 자원봉사자 수가 15,000여명이 넘는 등 단순 자원봉사의 역할을 넘어 명실상부한 “지역 자원봉사의 거점기관”으로 자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기반위에 “대한민국 대표 건강놀이터 홍천” 자원봉사 1등 군 달성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인식제고와 실천의지를 확고히 다지고,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자원봉사 조직 및 홍보, 연계협력 등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홍천군 자원봉사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천군 자원봉사자분들께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자 묵묵히 자원봉사활동을 펼쳐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자원봉사자 여러분!

여러분의 자원봉사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행동입니다.

‘인향만리(人香萬里)’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주신 여러분들의 자원봉사의 향기가 일상 속에 스며들어 사랑과 나눔의 따뜻한 홍천군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지역 곳곳에서 나눔과 봉사로 희망의 씨앗을 가꾸어 오신 것처럼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지만 미처 눈길이 닿지 못한 곳들을 살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희망찬 홍천군을 만드는데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전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홍천군의 자원봉사자 현황

(단위:명)

자원봉사자 등록인원	19년 신규		19년 1회이상	19년	19년
	남	여	등록인원	활동실적 (연인원)	활동실적 (활동시간)
계	7,356	8,005	486	2,032	14,021
					41,785

※ 자원봉사단체 : 276개 단체

### 재가 나들이 ‘함께 너나들이’

홍천군노인복지관은 6월 21일 재가대상자와 나들이를 진행하였다. 올해는 강원도 속초를 방문하였다. 이날 나들이는 강원도 속초에 도착해 점심식사를 시작으로 하모니 유람선에 탑승하였다. 하모니 유람선에서 90분 동안 평소 즐겨보지 못한 공연관람과 서커스 관람이 이어졌다. 유람선 외부와 내에서 사진을 추억의 사진을 찍으며 대상자들의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홍천군노인복지관 관장 자월스님은 “이번 재가나들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홍천군에 맞는 복지사업 발굴을 통해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 홍천군노인복지관이 개최한 ‘함께 너나들이’ 행사에 참가한 어르신들이 속초 유람선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천군노인복지관에서는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외출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의 활력소를 제공하고자 하며, 어르신에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년 재가나들이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의 균형적인 발전과 저소득층 및 지역사회 어르신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재가어르신을 위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복지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손민지 사회복지사

### CONTENTS



02 - 살만한 홍천

03 - 홍천의 재발견,

홍천 여기를 가보자!

04 - 경로당 탐방

05 - 체육행사

06 - 문화행사

07 - 자원봉사단체 소개 및 칭찬

08 - 건강정보, 독자칼럼



**살만한 홍천**

**동면 월운리 천진구(71)씨**

**“홍천사과처럼 단맛 나는 가정·사회 만드는데 일조”**



◇홍천 동면 월운리에서 사과농사를 짓는 천진구씨 부부. 천씨는 1000평의 농지에서 460 그루의 사과나무를 돌보고 있다.

**‘가화만사성 / 매사에 최선을 다하자’ 가훈실천  
가족 사랑과 사회봉사 실천하며 타인에 모범 보여**

로 생활하였다.’고 천 씨를 소개하고 있었다.

**“사과는 색깔 보지 말고 맛을 보아야 하고  
홍천은 내가 먼저 아끼고 발전시켜야”**

**문전옥답에 사과 과수 등 농사지며  
“아내와 함께 살아온 홍천이 가장 좋아”**

**“내 고장을 아끼는 것이 곧 내 국토를 아끼는 것”  
사회봉사에 헌신 국무총리 표창 등 다수 수상**

오음산(五音山)이 안아주는 동면 월운리 진평 마을에서 ‘명품 홍천사과’를 만들어 내는 천진구 씨는 한여름 같은 무더위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다.

천진구 씨는 월운리 이장, 예비군 중대장, 대한 재향군인회 동면 분회장, 법무부·홍천경찰서·희망지구대의 범죄 예방활동, 동면 농협 감사 등으로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를 하며 많은 수상을 하였다.

동면 월운리 홍천군 동쪽 끝이었지만 중앙고속도로가 개설되어 전답을 가로지르는 바람에 산속에 갇혀 있던 마을이 외부로 뚫려서 천진구 씨의 사과 과수원에 주렁주렁 줄지어 매달린 사과들이 시원한 느낌을 준다.

특히 사단법인 민족통일 홍천군협의회 회장으로서 ‘민족의 염원인 조국의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적 역량을 배양하는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하여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홍천에서 나고 자란 탓에 홍천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르다’는 천 씨는 “농사는 꾸준히 노력해야 하므로 매우 힘든 직업인데 아내가 늘 함께 일 해줘서 무척 고맙다. 그래서 소중한 여기는 것이 ‘가화만사성’이다. 잘 익은 사과 빛처럼 아내가 곱고 예쁘다”며 부인의 손을 잡는다.

천 씨의 부인 김영옥 여사는 “농촌의 바쁜 일손을 아껴서 틈틈이 사회봉사를 하는 남편이 자랑스럽다.”면서 그동안 남편이 받아온 표창장, 감사장 수십 점의 진열된 서재를 공개했다.

지구의 온난화 영향으로 홍천의 기온이 대구처럼 변하고, 산지의 영향으로 일교차가 심해서 홍천사과가 맛이 좋다고 한다.

서재에는 ‘현대한국인물사(現代韓國人物史, 한국민족정신진흥회 출간)’가 꽂혀 있었는데, 가나다 순으로 편집된 이 인물 사전에는 첫 페이지에 김대중, 둘째 페이지에 김영삼 전직 대통령이 수록되어 있었고 ‘ㄸ’으로 시작되는 페이지에 천진구 씨가 수록되어 있었다.

“텃밭 1,000평에 460주의 사과나무를 심어서 4년 차인 작년에 첫 수확을 하여 1,500 만원의 소득을 올렸는데 사과가 달고 맛있어서 좋은 평을 받았다. 올해는 나무가 작년 보다 자라서 더 많은 소득이 기대 된다”며 천 씨는 아끼는 사과나무를 어루만져 준다.

그 서적에는 ‘매사 인화에 힘쓰고 자연과 사람 모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친환경 농업과 인류의 생산 산업에 노력하고 있으며, 명예를 중시하여 정도가 아니면 추종하지 않는 강인한 성품에 공사분별이 철저하고 책임의식이 강하여 성실한 자세

“시장에서 사과를 납품받을 때 맛은 관계없이 빨간 빛깔만 원한다. 빨간 빛깔을 내게 하기 위해서 사과가 익기 전에 사과 잎을 따줘야 한다. 사과 잎을 제거하여 강제로 익히면 사과 빛은 새빨갛지만 당연히 사과 맛은 달지 않다.” 천진구 씨는 이러한 농사 방식이 안타깝다고 했다.

또한 농사를 통해서 많은 철학을 터득한다고 했다.

자연스럽게 익은 사과가 빨갛지는 않지만 맛이 달고 영양가가 높은 것처럼 투박해 보이지만 진실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홍천이 살만하다고 했다.

홍천의 인심이 예전 같지 않다고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농촌은 마음의 고향이라는 농심사상으로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의 정신을 실천하면 마음이 편안하다고도 했다.

다섯 음이 화음을 이룬다는 ‘오음산’ 아래에 “사과 고추 오이 등이 주렁주렁 맺히고 이골 저골 숲을 따라 백화가 조화를 이루니 아내와 나는 항상 최선을 다하며 ‘가화만사성’의 복을 누리다.”는 천 씨 부부의 ‘홍천 찬가’가 울려 퍼진다.

덕분에 남편 손을 잡고 사진을 찍어본다며 김영옥 여사는 수줍어하고, 천진구 씨는 그윽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다.



허남영 기자

홍천의 재발견, 홍천 여기를 가보자!

두촌면 '원진조각미술원'

# 돌에 생명을 넣어 고향 산천에 그린 꿈의 정원



◇한국화단에서 주목받는 작가인 박기환 화백이 1999년부터 고향인 두촌면에 조성한 원진조각미술원에 다양한 작품이 전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 '살아 있는 돌조각가' 박기환 화백이 20년간 조성 40여년간 교직생활 후학 양성 후 귀향 작품 활동

화가, 조각가, 조경사, 건축가, 설계사 .....

어떤 수식어가 그의 이름 앞에 붙여지면 적당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뱀가이버'라는 말 밖에는 떠오르지 않는다. 그의 손이 닿으면 사물에 혼을 불어넣어 생동감을 주는 마법의 작품이 탄생한다.

철정검문소를 지나면서 강 건너를 건너다보면 황금색 이티(E.T) 모형의 건축물이 멀리 보이는 곳에 팔순의 미소년 박기환 화백이 꿈을 심는 곳이 있다. 향교골 네거리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다리를 건너 갈림길에서 홍천 쪽으로 따라 내려가면 '홍천군 두촌면 철정길 138-7'에 '원진조각미술원'이 바로 그곳이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조형물이 많은 곳이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 왔습니다.

- 언제부터 이곳에 터를 잡고 작품 활동을 해오셨나요?

한국화단에서 많은 활동을 해오다 뜻한 바 있어 1999년에 유년시절 꿈을 그리던 고향땅으로 돌아와 원진조각미술원을 작품의 산실로 설립하고 정열을 바쳐 작품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 이곳에 오기 전에는 어디에 계셨는지요? 그리고 고향땅으로 오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수원에서 40여 년간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생활했습니다. 퇴임 후 경기도 교육청 미술관에 1일 미술학교 교장으로 취임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IMF가 터져 지원이 삭감되어 후학 육성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 교단에 계시면서도 많은 활동을 하신 걸로 아는데 어떤 일을 하셨나요?

군복무중 부산공보관에서 개인전을 시작하여 이후 수많은 개인전과 단체전 그리고 수원시민 헌장비, 경기도 교육청 조형물, 한국등잔박물관 상징물 등을 제작했지요. 한국미협 경기도지부장, 미술작가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한국미협 수원, 경기, 홍천예총 고문으로 있습니다.

- 태어난 곳은 어디인가요? 그리고 고향에서 학교는 어디를 다니셨는지요?

1939년 홍천군 두촌면 과석리에서 태어나 철정국민학교와 두촌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가서 서라벌고등학교와 서라벌예술대학 미술과를 졸업했습니다.

- 화백님의 작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꽃과 나무를 그림으로 그리다가 세월이 흘러 살아있는 나무조각품을 기르고 가꾼 작품이 아름다운 형태를 이루었지요. 그 속에서 돌조각하고 집 짓고 그리는 동안 시간이 흘러 많은 정성으로 살아있는 작품이 끊임없이 태어납니다.

- 선생님은 서양화가로 알고 있는데 조형물이나 조각품 등은 언제부터 만드신 건가요?

초등학교 시절 6.25전쟁으로 모든 시설물이 파괴되어서 선생님들과 학생, 학부형 모두 같이 흙벽돌을 만들어 교실을 만들고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미군부대에서 원조물자를 받아 학교짓는데 시멘트 벽돌을 쌓는 등 실습을 하여 배운 실력으로 별장을 설계하고 짓고 조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 선생님의 예술세계를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죽은 자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기술"이라는 영원성을 상징하는 돌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으로 한평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홍천의 돌과 수원 돌, 강화도의 돌들을 채석하여 빚어낸 작품들은 자연과 인간의 삶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심의 세계와 공간을 만날 수 있는데 인간의 삶속에 내재해 있는 그리움과 시간의 영원성을 원형의 이미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작품이 끊임없이 탄생하겠지요. 언젠가는 또 자연과 하나가 되는 날이 있을테고...

- 네, 감사합니다.

예술은 멈춤이 없는 작업이다. 상상의 세계는 곧 형상을 드러내고 그 형상은 우리들의 삶의 한 형태로 다가온다.

자연석을 뿔뿔하게 병렬하여 벽 조각을 만들거나, 또 부조작업도 하고 있으며 이것들이 모두 조경과 어우러지도록 배려함으로써 그의 작품세계가 철저하게 자연과 생명을 주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시키고 있다. 양지바른 산 밑으로는 오래된 밤나무가 나란히 서 있고 그 앞으로 이티(E.T) 모형의 작업실과 고래모형의 작품보관소가 자리하고 있으며, 연못과 잔디밭 위에 잘 다듬어진 향나무와 조각품들이 배치되어 있는 곳 '원진조각미술원'이다. 아직은 널리 알려지지 않고 찾는 이도, 찾아오는 길도 만만치 않다. 이정표도 안내판도 없다. 그러나 꼭 한번 찾아 둘러보라고 권하고 싶다.

건축물의 형상이 이티(E.T)라기 보다는 족두리 쓴 여인의 모습이라고 주인은 귀엽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조하경 기자

# 365일 개방 회원과 식사 같이 하며 오순도순 생활



◇신장대3리 경로당 회원(앞줄 오른쪽 세번째부터 회장, 총무, 부회장)

## 봄·가을 여행 화합 최고... 노래·체조교실 선정안돼 서운 “경로당 앞 건물 일조권 침해·사고 위험 높아 대책 시급”

홍천읍 신장대3리 경로당은 홍천 읍내의 단독주택지내의 마을로 홍천 찰옥수수 축제, 홍천인삼 명품축제, 홍천강 썩썩축제 등 홍천군의 각종 축제가 열리는 홍천강변의 토리숲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다.

신장대1,2,3리가 연합 경로당으로 운영되던 것이 2017년말 신장대1,2리가 경로당이 신축되어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 현재의 전장수 노인회장(82세)이 즐지에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새롭게 태어난 경로당 운영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경로당이 분리될 당시 경로당 건물 및 집기 등이 노후화 되어 전장수회장과 부회장 최근옥 할머니(85세), 이근환(76세)총무 등이 주축이 되어 건물내부를 리모델링하였고 냉장고, TV 등을 비롯한 각종 집기들을 새로 장만하였다고 한다.

현재 남성회원 30명 여성회원 53명 등 약 83명의 어르신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최장수 어르신은 93세이신 이병숙 할머니시고 부회장이신 최근옥 할머니가 85세로 다음 년차라고 하시며 할아버지들의 최고령자는 정두일(85세)어르신이고 다음으로는 노인회장인 본인이라고 말씀하시며 겸연쩍어 하신다.

회원들 대다수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라고 하시며 읍내에 있다 보니 농사를 짓는 분이 전혀 없어 식자재를 거의 100%로 구입하신다고 한다. 또한 농사를 안짓는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경로당을 공휴일 없이 365일 항상 개방하며 식사도 때

일 같이들 하고 있어 서로 오순도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좋는데 경비 측면에선 식자재 값도 타 경로당보다 많이 들어간다고 이근환 총무가 거드신다.

경로당 자랑을 말씀해달라고 하니 세 분 모두 이구동성으로 우리 경로당은 화합이 잘되고 협조가 잘되는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대답하신다.

전회장께서 봄 가을 여행을 간다고 하시니 최 부회장께서 초복, 중복, 말복, 단오 등에 자체적으로 잔치를 벌인다고 하시며 이 총무 부부가 경로당 회원들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다.

타 경로당과 마찬가지로 홍천군에서 진행되는 노인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쓰레기줍기 참가자 외에는 특별히 할 일이 없어 심심풀이로 화투로 소일을 하고 있어 노래교실, 체조교실을 요청했는데 선정이 안된 것을 서운해들 하셨다.

각 마을의 경로당마다 숙원사업 또는 애로사항들을 말씀하시는데 신장대3리 경로당은 경로당 현관앞에 44㎡의 땅에 18㎡짜리 건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 경관, 일조권을 침해함은 물론 주차공간이 없어 회원들이 자동차는 고사하고 보조보행기(일명 유모차)조차 놓을 장소가 없어 경로당 이용률도 떨어지고 바로 앞의 강변도로의 통행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대두되어 홍천군 및 군의회 등에 이 건물의 철거를 요청했지만 형식적인 답변만 받았으며 애로사항 기사를 꼭 게재

하여 달리는 부탁의 말씀을 하신다. 기자가 보기에 이 건물로 인해 경로당이 막혀 있고 자동차 1대 주차할 공간조차 없어 경로당 이용에 어르신들의 불편함과 안전사고 등이 염려 되었다.

기자 생각에는 군재정 형편상 각 마을 경로당의 애로사항을 다 들어 줄 수는 없지만 신장대3리 경로당의 경우 홍천군에서 진행되는 옥수수축제 등 각종 축제 장소 바로앞에 위치하고 있는 바, 이 축제들을 개최시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이니 매년 이들 축제 예산에서 일정 부분을 주차장 확보차원 할애하여 이 부지를 매입하여 축제 기간엔 방문객들에게 주차장으로 개방하고 평소엔 어르신들이 이용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바 축제 주최측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길 권유하고 싶다.

전소열 기자 (silverhong21@naver.com)

### 대한민국 건강놀이터 홍천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

(장소 홍천읍 산림공원 토리숲)

- ◆ **봄**
  - 홍천한우, 산나물축제 (5월10일~12일)
    - 프로그램 : 홍천산나물 판매, 홍천한우 셀프식당, 요리경연대회, 산나물모종 나눔체험, 7080콘서트, 폼바공연 등)
- ◆ **여름**
  -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 축제 (7월24일~28일)
    - 프로그램 : 홍천특산물홍보판매, 무대이벤트, 맥주시음, 수제맥주 담그기, 연관행사, 세계 wet dance 경연대회
    - 문 의 : 033-439-5853
  - 제23회 홍천 찰옥수수축제 (7월26일~28일)
    - 위 행사와 동시개최
    - 전국유일의 옥수수 테마축제임
    - 프로그램 : 전국 요리 경연대회 등
- ◆ **가을**
  - 홍천 인삼 명품축제 (매년 10월중 개최)
    - 프로그램 : 명품 6년근 인삼판매, 다양한 이벤트, 다양한 먹거리, 불꽃놀이 등
    - 문 의 : 033-439-5853
- ◆ **겨울** (매년 1월중 개최)
  - 홍천강 썩썩축제
    - 프로그램 : 맨손인삼송어잡기, 야간낙시터, 얼음썰매, 발구, 홍보관, 향토음식점, 선등거리, 얼음눈꽃 분수, 비발디파크 스노우월드, 알파카월드 등

\* 홍천군에서 주최하고 (재)홍천 문화재단에서 담당하는 축제임  
(출처 : 홍천 문화재단 홈페이지)

체육행사

홍천군 테니스 어제와 오늘

# 1970년초 코트 3면서 출발 각종 대회 우승

홍천여고·양덕상고서 우수 선수 발굴 발전 기여  
60~70대 30여명 매일 종합운동장서 건강 다져

홍천의 테니스는 1970년도경 홍천세무소(현재 한림중앙병원터) 코트와 교육청 코트 그리고 홍천경찰서에 각 1면씩 있어 3면의 코트가 있었다. 이때는 연식을 치다가 현재의 테니스로 바뀌어 주로 직원을 중심으로 쳤다. 그 후 현재의 금강운수터에 3면의 면이 있었고 이어서 홍천중고등학교에 2면이 있었고 홍천여자고등학교에 3면이 생겨서 본격적으로 테니스가 활성화 되었다. 홍천여고에는 테니스부가 생겨 도 대회에도 나가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홍천군 테니스협회 결성하여 성인 테니스는 금강운수터미널 터에서 연령에 관계없이 20여 명이 모여서 최초의 협회로 조직해서 홍천군 테니스 협회가 창립했다.

직장인들은 새벽에 주로 하고 자영업자는 오후에 쳤다. 그러다가 코트장이 터미널로 바뀌면서 회원들이 모금을 해서 현재의 종합복지관터에 역시 3면을 만들어서 10여년을 쳤다. 이때 회원들이 많게는 몇백 만 원 적게는 몇십 만 원을 각출해서 4천여 만원의 기금으로 명실공히 홍천테니스장을 건립하여 동호인들이 즐겼다.

현 솔잎 테니스 동호인으로 창단할 당시만 해도 연령별 차이가 심해서 60세 이상은 솔잎회의 명칭으로 협회로 조직했고 젊은이들은 여러 단체가 조직되어 그중에도 동호회가 중심이 되어 치다가 다시 테니스장 자리에 종합복지관이 들어와 솔잎회와 동호회는 현재의 종합운동장으로 옮기게 됐다. 그때 홍천군청에서 동호회와 솔잎회에게 종합운동장 전용코트 4면은 영구히 쓰도록 했고 동호회와 솔잎회는 3천여 만원을 군에 기탁했다.

당시 군에서 3천여 만원은 보상을 받든지 구장을 전속으로 쓰든지 선택하



◇홍천의 테니스는 1970년대 초 연식정구에서 출발했다. 지금은 종합운동장에 5개의 클럽이 활동할 정도로 활성화 되어 있다.

라고 했다. 당시 면 단위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남면의 양덕상고(현재 강원과 학교등학교)에서 남·여 선수들이 양성돼서 홍천여고와 같이 홍천 테니스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다. 우수한 선수 발굴하여 좋은 성적으로 도내 대회에서 여러 번 우승하였고 청소년대표 상비군까지 올랐으며 생활체육테니스 랭킹 1-2위를 이루고 있다.

종합운동장에 5개의 클럽이 있으며 이 중에는 60세 이상 이순회 및 70세 이상 고회회원 30여명이 매일 코트장에 나와서 건강을 다지고 있다.

솔잎회 회장 김세영, 총무 손형식



안태수 기자

게이트볼 시리즈

## 제12회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성료



게이트볼 대회가 6월 13일 10시에 홍천군 북방면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비록 신체의 일부가 장애를 입었으나 용기와 소망 중에 '나도 할 수 있다'는 긍지를 가지고 경기에 임하였다. 선천적 장애인 보다 후천적 장애인이 더 많았다. 대부분 청각장애인이 많았다. 평창 선수 중에 김시영(68)선

수는 12살 때 부모님이 방앗간을 경영하여 일손을 돕다가 불의의 사고로 다리 한쪽을 잃었다. 목발을 짚고 게이트볼 선수로 평창 대표팀으로 출전하였고 평창게이트볼협회 부회장이라고 한다. 속초팀 중에 한진현(60여)선수는 3살 때 고모들이 귀엽다고 업고 다니다 땅바닥에 떨어뜨려 허리골절상으로 허리 장애인 선수가 되었지만 게이트볼 선수가 된 것이 큰 영광이라고 하였다. 게이트볼 경기결과는 1등 횡성군, 2등 인제군, 3등 원주시가 차지하고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 제26회 홍천군 지회장기 노인 게이트볼대회 91팀 출전



6월 14일(금) 홍천군 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가 오전 9시에 시작하였다. 참가선수는 65세된 노인 800명 91개 팀이 출전하였다. 북방 공설운동

장 이영지 회장이 경기를 선포하고 예선을 거쳐 결승 토너먼트식으로 경기가 진행되었고, 금메달 서석가구B팀, 은메달 두촌행계팀, 동메달 동면 노천팀, 장려상 내면 창촌팀, 남면 매화팀, 내촌 장수B팀이 차지하고 종료되었다.

## 편리한 북방 공설운동장

홍천군 북방면에 소재한 공설운동장은 홍천읍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동쪽에는 소나무가 울창한 마지기고개가 있다. 학이 소나무 숲에서 울었다고 하여 송학정이라 불리는 곳은 현재 잘 정비되어 무궁화 테마파크가 되었다. 북쪽에는 강원도 자연환경생태공원과 강재구공원, 성동천과 홍천 저수지가 자리하고 있다. 서쪽에는 무궁화 수목원과 한서 남궁역 동상이 있고 하이트 맥주공장이 있어 한국의 애주가들의 1/3의 맥주를 공급하고 있다. 남쪽에는 파병산이 있다. 옛날 왜적이 대패하였다고 붙여진 이름으로 현재 산 너머에는 군사령부가 있다. 제54회 강원체전 때 홍천군수가 하키선수로 출전하였다고 극찬을 받았다. 단체장 중 선수로 출전한 것이 1호라고 하였다. 솔선수범하시는 홍천군수와 더불어 평창에 버금가는 홍천이 될 것을 염원한다.



이광명 기자

# “내 그림을 누군가가 사랑해주면 행복”



◇ 지난 6월 홍천문화예술회관에서 ‘꽃과 여인을 그리다’로 개인전을 개최한 김영진 화백과 그의 작품들.

## ‘꽃과 여인을 그리다’ 주제로 문예회관에서 전시 단순하지만 심장을 요동치게 하는 작품 인상적

제2회 김영진 개인전 “꽃과 여인을 그리다”의 테마로 홍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에서 6월 8일부터 6월 20일까지 전시회를 열었다.

작가의 말을 들어 본다. 몇 년 전 아드리해의 진주라고 불리는 두브로니크를 여행했었다. 작고 아담한 숙박집의 주인아주머니는 우리가 묵고 있는 방에 한 점의 인물화를 걸어 놨는데 소박하지만 연필로 그린 누드화가 있어서 몹시 반가웠었다. 크지 않은 소도시의 웬만한 숙박시설에 비싸지 않을 듯한 그림들이 한두 점씩 걸려 있는 것이 부러웠고 구경 다니다 보면 골목과 작은 집들도 그림을 그리고 싶을 정도로 예쁜 곳이 많았던 기억이 있다.

소품 한두 점씩이지만 살면서 벽에 그림 한 점 걸어 놓고 사는 그들의 여유 있는 마음이 얼마나 좋았던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생각이 나면 마음이 설렌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림을 그리면서 혼자서 중얼거린다. “내가 그리는 그림도 누군가가 사랑해 줄 수 있는 작품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예술의 본령은 남에게 감동을 주며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일 것이다. 김영진 화가의 말대로 누구에게인가 자신이 그린 작품이 사랑받고 인정을

받아야만 가치를 발휘할 것이다. 여행에서 느낀 작은 도시에서 벽화나 소시민의 집에서도 소품을 한두 점씩 걸어 두고 사는 여유와 풍류를 작가의 말에서 얘기하고 있다.

김영진 화가는 강원대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경기도 지평중학교 미술 교사와 홍천여중, 내촌중, 화촌중학교 미술 교사를 역임했다. 교직 퇴직 후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림은 돈이 되지 않아요.” 하며 그는 씩씩히 웃었다.

이번 전시회에서 그림 몇 점을 팔았다며 자랑삼아 말했다. 유명세를 지닌 작가들의 작품이야 값이 천문학적인 금액이지만 그렇지 않은 작품의 경우 잘 팔리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다. 예술혼은 궁핍 속에서 더한 생명력을 발휘하는지 모른다. 그의 작품은 유화작품으로 단순하면서도 심장을 요동치게 몽클하게 하는 힘이 있었다. 꽃과 여인의 테마로 선이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이미지를 직조하고 있었다.

### 유화의 기법과 연혁

색조나 색상의 배합이 매우 용이하다. 또한 선의

처리와 뚜렷한 윤곽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투명과 불투명, 반투명의 회화가 모두 가능하며 질감의 다양성은 그 어느 것보다 뛰어나다.

유체물감을 회화 매체로 사용한 것은 일찍이 11세기부터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유체물감을 사용하여 이젤화로 유화를 제작한 것은 15세기 템페라 기법이 직접적인 기원이다. 16세기 유체물감은 베네치아에서 기본적인 회화재료로 쓰였는데, 당시 베네치아의 화가들은 유화의 기본 특성을 찾아내는 데 능숙했다.

특히 물감을 여러 겹 덧칠하여 훌륭한 효과를 거두었다. 17세기 유화기법의 대가는 벨리스크스, 램브란트다.

그러나 많은 화가들은 쓰임새가 넓고 건조가 빠른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유화 기법이 우리나라에 처음 알려진 것은 18세기에 베이징을 왕래한 박지원 등 서양 문화에 관심을 갖던 실학과 지식인들에 의해서였다. 당시 청나라 양풍 유화가가 그린 식물 유화를 가져온 기록도 전해지고 있다.

1920년대 이후에는 더욱 급증하게 된 양화가들과 더불어 유화는 전통 회화의 수묵화, 채색화와 대비된 새로운 양풍 회화 기법으로 우리나라에서 뿌리를 내리며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였다.

김정현 기자



# 재난지역 언제 어디서든 가장 먼저 달려가 봉사



◇봉사현장에서 자리를 함께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홍천지구협의회 회원들(사진 왼쪽)과 정기적으로 펼치는 사랑의 빵나눔 행사 모습.

## 홍천지역 15개 적십자봉사회 참여 결속력 자랑 서로 돕고 이끌며 도움 필요한 곳에 온정 전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홍천지구협의회는 홍천에 있는 15개 적십자봉사회를 총괄하고 함께 하는 단체이다. 홍천지구협의회 이복여 회장은 새마을부녀회,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행해온 봉사의 베테랑이다.



◇이복여 회장

그녀를 만나 협의회를 이끌어 가면서 느끼는 보람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녀만의 노하우를 들어 보기로 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홍천지구협의회는 협의회장, 부협의회장, 사무부장, 차장, 재무부장, 홍보부장 산하에 8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분과 위원장들마다 각자 다른 분야(노인, 청소년, 이주민, 재난, 보건 등) 역할을 맡아 활동하며, 홍천을 5개 봉사회와 10개 면 봉사회로 총 15개 봉사회가 활동하고 있다.

각 분과위원장은 역할을 분담하여 맡은 지역봉사회를 이끌어 가면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등을 수렴하여 화합하고 있다.

이번 강원도민체전과 장애인체전의 경우 3월부

터 운영회의를 열고 각 단체장, 분과위원들과 회의를 거쳐 체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모두가 일심단결하여 봉사했다.

체전기간에는 봉사자들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들이 있는지 살피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추진 위원단에 상황을 보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왔다.

### 재난지역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

이번 강원도 고성, 속초, 강릉 등에 산불이 났을 때는 재난본부의 요청에 따라 8대의 차량을 동원해 음식을 여러 지역으로 나르는 일을 맡았다.

처음에 음식을 만드는데 급급했던 봉사단체들이 음식을 정해진 시간에 맞춰 배달하는 일이 어려워지면서 홍천지구협의회에서 배달을 전담으로 맡게 되었다. 산불피해지역 음식 배달을 통해 홍천지구협의회의 협동과 결속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지금까지 인터뷰를 통해 느낀 바 봉사회가 결성이 되어도 지속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단체는 왜해지기 십상이다. 그러나 자주 만나서 봉사하고 하면 할수록 더 결속력이 강해지는 것이 봉사단체의 생

리이다.

편한 것을 추구하고 일하기보다 놀기를 좋아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봉사만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힘들어도 서로 웃고 도우면 힘이 난다고 말한다.

### 리더의 역할, 때로 언니처럼, 엄마처럼

때로 단체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회원도 있고 일보다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잘 하는 회원도 있다. 성향이 각각 다른 이들을 잘 통합하고 이끌어 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귀하고 좋은 일꾼들이다. 회장의 역할이란 그리 쉽지도 어렵지도 않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잘하는 사람을 칭찬도 하지만 못한다고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다.

### 봉사를 나를 위한 것

많은 사람들은 봉사가 남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돌이켜보면 봉사는 자신을 위한 일이다. 봉사를 통해 얻는 기쁨과 행복감은 맛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다.

직업의 귀천보다 그 안에서 보람을 찾는 것이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듯 봉사 또한 그런 것 같다. 살아가기도 바쁜 세상에 때로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일도 내가 하던 일을 제쳐두고 달려가는 봉사대원들의 삶은 아름답고 귀하다.

김순화 기자



**건강정보**

**식중독**

**식중독이란?**

- 식중독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독소 등에 의해 감염된 음식을 먹고 난 뒤 생기는 설사, 복통, 구토 증상을 말한다.
- 살모넬라균은 오염된 돼지고기, 튀김류, 김밥, 닭고기, 햄 등이 원인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장염비브리오균은 조개와 같은 어패류 등이 원인이며, 황색포도상구균 및 병원성대장균(0-157, 0-26, 0-111, 0-UT)등 식중독 사고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식중독 예방 3대 원칙**

**▶ 청결의 원칙**

청결한 손, 청결한 재료, 청결한 조리기구 등 청결이 가장 중요

**▶ 신속의 원칙**

원료(재료)를 구입하여 신속히 조리하거나 식품을 조리하였을 때 장시간 방치하지 말고 신속히 섭취하여야 한다.

**▶ 냉각 또는 가열의 원칙**

식중독균은 일반적으로 5°C이하 또는 60°C이상의 온도에 생육이 억제되므로 냉각하거나 가열하여야 안전하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 안전하지 않은 물이나 음료, 얼음은 먹지 않는다.
- 뜨거운 음식은 뜨거울 때, 찬 음식은 잘 때 먹는다.
- 채소, 육류, 생선이나 패류를 날 것으로 섭취하지 않고, 과일을 껍질을 벗겨서 먹는다.
- 설사를 할 경우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

**가정에서의 위생 수칙**

- 물은 반드시 끓인 후 식혀서 먹습니다.
- 음식물은 반드시 익혀서 먹습니다.
- 식사 전이나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출처 : 영양사 정보 공유 사이트 영양사도우미

**독자칼럼**



**석도익**

소설가

청소년이란 어린이를 지나서 성년이 되기 전, 꿈과 희망이 가득한 세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청소년이 되면 제일 먼저 치러야 하는 사춘기가 있다. 어린이때는 부모님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는 요람에서 자랐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안아주고 업어주며, 손 붙잡아 이끌어주던 시기를 지나서 자기를 알아가는 단계, 그 첫 단계가 사춘기라는 홍역으로 찾아온다.

지금까지 어린 몸을 보호해주던 보호복을 벗고 자기의 체형에 맞는 크기와 좋아하는 색깔의 껌질을 입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껌질을 깨고 벗어야 하는 아픔을 견디어 내야 하는 과정이다.

사춘기 청소년은 지금까지의 틀을 깨고 더 크기 위한 몸부림은 이유 없는 반항과 어른이 되려는 몸부림은 허물을 벗는 과정이다. 더 큰 새로운 껌질로 바꾸기 위한 모험이기도 하다.

사춘기란 청소년기 누구나 겪는 것이라 그저 내버려 두면 자연히 치유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에서 방치함으로 간혹 탈선을 한다든가 뻘뻘어진 성격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에 부모 가족 사회에서는 따뜻한 지도와 훈육이 절실히 요구되지만 그러하지 못하고 오히려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은 꿈도 시시각각 푸짐하게 꾸어지고 희망 또한 수시로 바뀌어지며 허무맹랑한 이상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현실은 이를 포용하지 못하니 미운 오리새끼가 되기 쉽다.

어린이 때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과잉보호라고 할만치 보호

받았으며 어린이날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청소년이 되었으니 컸다고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다만 청소년에게 특권이 있다. 청소년도 하지 않아도 되고, 부모님들의 일을 도와주지 않아도 되며, 공부 이외에 다른 것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청소년의 직업은 공부인양 공부만 해야 하니, 부모나 형제자매 함께 살면서도 가족으로 끼어주지 않고, 오로지 공부만이 강요되니 이로서 집안에서부터 왕따가 되어진다.

언제나 외톨이로 자기 방에 감금상태가 되어 있는 좁은 공간은 푸른 날개를 가졌으나 날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모든 것이다.

청소년의 외로움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다. 학교생활 이외에 자투리 시간은 학원으로 이월되어 공부와 예체능을 보충해 넣어야 하니 자신의 시간은 없다.

청소년들이 다녀야 하는 길은 정해져 있고 활동범위 또한 울타리가 쳐져 있

어머니의 가슴에 안겨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젖을 물린 모정도 못 받은 아이가 많았을 것이고, 어머니의 등에 얹히면 전해지던 따스함도 물랐을 것이며, 학교급식으로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주신 도시락의 따듯한 사랑 또한 못 느끼고,

밖에서 못된 짓을 해도 어른들이 못 본체하고 지나가는 현실에서 청소년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왕따 되어 지니, 혹여 청소년의 욕구불만이 언제 분출되어 터질지 모르는 안전핀도 허술한 시한폭탄과도 같다.

집에서는 어머니의 정 대신 돈으로 대체되고 아버지는 위엄과 존경보다는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편견에 존댓말도 익히지 않은 청소년들이 인성과 예의는 어찌 알 수 있으랴! 거기다 학교교육은 대학입시를 위한 시험문제에 나오는 객관식 "사지선다"에 옳은 답을 찍기 위한 주입식이다.

요즘은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을 켜고

민의 날, 군인의 날, 장애인의 날, 노농자의 날 등은 다 있는데 청소년의 날은 없다. 다만 가정의 달에 청소년의 달이 함께한다.

세계청소년의 날은 있다. 요즈음 몇 지자체에서도 청소년의 날을 제정하고 있다.

홍천군 의회에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의 날을 제정해 줄 것을 의뢰드린다. 또한 어린이들을 위한 "홍천꿈나무큰잔치"와 같은 청소년을 위한 축제 "푸른 날 큰잔치 마당"을 홍천군에서 열어 주었으면 하고 청원 드린다.

홍천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푸른 꿈을 응원하고, 원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달 만이라도 군청에서는 청소년들과 대화의 시간을 만들어 청소년들과 토론회라도 열고, 의회에서는 모의의회를 청소년들이 개최하게 하며, 경찰서에서는 일일 경찰관으로 생활하게 함으로 질서와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게 하며 청소년들의 예체능의 끼를 찾을 수 있게 예술문화단체에서도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며, 각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청소년들에게 지역주인으로서 활동의 폭을 넓게 함으로써 그들이 지역사회에 일원임을 피부로 느끼게 하였으면 한다.

특히 청소년 행사는 학교보다는 청소년들과 적성과 관계있는 교육복지단체, 학원, 독서실 사회단체 등 모두가 참여하고 협조할 것이다.

이 모든 활동을 통하여 우수하고 올곧은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의 날에 각 기관 사회단체에서 표창하고 격려 위로하며 청소년을 위한 "푸른 날 큰잔치" 청소년 축제마당을 개최하여 예체능 모두를 경연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백일장 시낭송 사생대회 음악경연 댄스경연 태권도 합기도 등 다양한 경기를 진행하여 그들의 끼와 기를 한껏 펼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홍천군 모든 청소년들이 하루만이라도 친구와 가족과 지역 어른들과 함께 어울려 공부에 짓눌린 가슴을 펴고 마음껏 즐기면서 이 사회에 일원임을 느끼며 홍천 군민임을 자랑스러운 추억으로 담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청소년들 꿈과 희망 키우자**

어서 일탈해 갈 수 있는 곳이라야 음침하고 공기마저 갇혀 있어 탁하고 좁은 공간인 PC방이나 인적이 드문 공원 뒷골목이 그들의 공간일 수밖에 없다.

지난날에는 지역에 행사나 음악회 체육대회나 각종 예체능 공연 등에도 학교에 허락으로 개인이나 단체참여 했으나 언제부터인가 학생동원이라고 차단되어 오직 학교밖에는 없다.

그러하니 청소년은 어느 곳이나 어느 부류에도 어울리지 못하고 열외되어 있으며 어디서건 반겨주지 않으려 한다.

청소년! 그들은 각자 혼자다. 그러므로 당연하게 혼자라는 것이 습성화되니 개인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 청소년에게 우리는 없고 "나" 그리고 "너"고 "나만"을 생각하게 되는 이기주의가 되어 질 수밖에 없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을 보면 개인이고 이기주의다. 이는 청소년기에 생성된 습성이다. 이들의 가슴에는 따뜻한 정이란 것 또한 씌우지 못한다.

가리는 곳으로 찾아간다. 찾아가기는 쉽지만, 다음에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갔던 곳도 다시 찾아가기 어려운 것 같아, 이러한 입시위주 교육은 내비게이션같이 늘 초행길이다.

선생님의 도시락을 가난한 제자와 나누어 먹을 수 있을 일 없고, 선생님 댁에도 한번 찾아가지 못하고, 학생 위한 가정방문도 없는 선생님은 교권마저 약해 교육공무원만 같다.

선생님들이 참교육을 부르짖고 있으나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치적 시위만 하는 것으로 보일뿐이다. 부모님이 선생님께 이른다든 말을 해보아야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이 제자를 사랑하는 것같이 제자도 선생님을 사랑한다.

이 모든 현상이 우리 집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학교에서 청소년들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가까이하지 못함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어린이날, 아버지날, 노인의 날, 군